미국 출생 한인 3명 중 2명, 현지인과 결혼한다

왕길환 기자 | 승인 2026.10.21 07:03

> 동포 2세 이상 비한인 배우자 66.2%…세대 거치며 다인종 가정 증가
> 교회도 28% 다인종 교회 출석…전통적 교회 중심성 약화
> 영어 사용 일상화에도 '한국인·한국계 미국인' 정체성은 유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해 AI가 생성한 이미지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3명 중 2명은 비한인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 교회를 벗어나 다인종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등 재미동포 사회의 가족 구성과 종교생활이 세대를 거치며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반면 영어 사용이 일상화되고 미국 사회에 동화되는 가운데서도 한국계라는 정체성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주한인연구소(KAI)는 한인재단(KAF)과 함께 실시한 '미주 한인사회 현황과 미래 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내 한인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했다. 이 가운데 자신을 한인이라고 밝힌 1,466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전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8%포인트다.

조사에 따르면 기혼 또는 동거 중인 한인 1세 가운데 비한인 또는 타민족 배경의 배우자를 둔 비율은 24.6%였다. 이 비율은 1.5세에서 46.1%로 높아졌고, 미국 태생인 2세 이상에서는 66.2%에 달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타인종과의 결혼이 보편화하는 흐름이다.

배우자의 인종 구성도 다양해졌다. 현지인 배우자 비율은 1세 17.7%에서 2세 이상 37.7%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른 아시아계 배우자는 2.7%에서 17.9%로 증가했고, 히스패닉과 흑인 배우자 비율도 각각 1세의 1.2%, 0.5%에서 2세 이상 6.1%, 5.5%로 높아졌다. 한인사회가 다양한 인종·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인 이민사회에서 정체성과 공동체를 지탱해 온 교회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한인 개신교인의 28%는 다인종 교회에, 20%는 백인이 다수인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소정 뉴욕주립대 버펄로 사회학·범죄학과 부교수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한인사회의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기존 종교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층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언어와 사회생활에서도 세대 변화가 확인됐다. 한인 1세의 69.5%는 영어를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34.6%는 자신의 영어 실력을 '매우 능숙하다'고 평가했다. 영어를 매일 사용하는 비율은 1.5세 89%, 2세 이상 96.8%로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 동화되는 것과 한국계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46.5%, '한국계 미국인'은 41.7%였다. 반면 '미국인'만을 선택한 응답자는 18.5%에 그쳤다. 생활방식과 가족 구성은 달라져도 한국계라는 유대감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왕길환 기자 wangeda@naver.com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